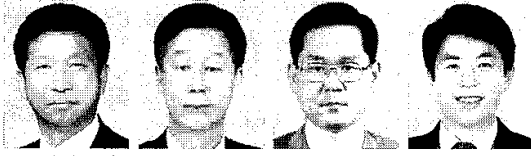


도내 기업인 4명 건설의 날 기념 표창

지역 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도내 건설인들이 건설의 날 표창을 받는다.

최인식(57) 대금 종합건설 대표는 17일 서울시 논현동 건설서관에서 열리는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한다. 최 대표는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삼척~동해고속도로 등의 건설에 참여하며 지역 SOC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했으며 원하도자



◇최인식씨 ◇김찬용씨 ◇이성식씨 ◇김철호씨

간 동반성장, 지역 고용 창출 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찬용(61) (주)대양 대표, 이성식(51) 웰텍(주) 대표, 김철호(49) 한신이엔지건설(주)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하위윤기자

도의장-김동일 부의장-권혁열·김성근

새누리당 당내 경선 6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김동일 의원 ◇권혁열 의원 ◇김성근 의원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새누리당 도의장에 4선의 김동일(철원)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은 권혁열(강릉), 김성근(속초) 의원이 뽑혔다.

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당내 경선을 열어 김 의원을 도의장 후보로 확정했다. 경선을 벌인 박영승(평창) 의원은 결전 끝에 근소한 차로 패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의원은 다음달 4일 개최하는 제 25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후반기 도의장으로 공식 선출된다. 도의회 전체 44석 중 새누리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의원들이 사실상 후반기 의장단으로 확정된다. 운영위원장은 오세범(강릉) 의원이 김기홍(원주) 의원에 승리해 당 후보가 됐다. 초선인 대결이 펼쳐진 경선

없이 그대로 후보로 추대됐다. 기획행정위원장은 장세국(화천), 사회문화위원장은 조영기(양구), 농림수산위원장은 진기영(황성), 교육위원장은 남경민(정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단 9석 중 1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원선영기자

설위원장 경선에서는 박갑선(원주) 의원이 최성현(춘천) 의원을 앞서 후보로 낙점됐다.

단수로 접수된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별도의 경선 절차



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16일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협회 및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부의장 따로’ 교차투표 승패 갈랐다

與 도의회 의장단 후보 경선

1인2표제 영향 최대변수 작용 후유증 봉합·野 관계개선 과제



오세봉 운영위원장 박갑선 경건위원장 장세국 기행위원장 조영기 시문위원장 진기영 농수위원장 남경문 교육위원장

16일 실시된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새누리당 의장단 경선의 승패를 가른 것은 일부 의원의 ‘교차 투표’였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이어진 연대는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도의장 경선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박영승(평창) 전 원내대표가 김동일(철원) 부의장의 맞수로 나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결국 4선의 벽을 넘는 데는 실패하며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두 후보의 득표 차는 근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김동일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임남규(태백)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의장 경선에서의 표심이 부의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1인2표제에 따른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교차투표는 더욱 힘을 발휘했다. 운영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경선에서도 현 의장단과 원내대표단에서 각각 한 석씩 가져갔다.

치열한 경쟁 끝에 출마한 후반기 도의회는 당분간 전반기에 내세웠던 ‘강한 의회’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김시정 도의장과 함께

했다 김동일 부의장이 차기 도의회 사령탑으로 사실상 확정되며 도 및 도교육청과의 관계를 기존의 틀에서 풀고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동일 부의장은 “도의회의 견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정치를 해 나가기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당내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경선 후유증을 봉합하는 것이 과제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실태를 풀고, 의원 개개인의 마음을 모아야 정상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관계 개선 역시 숙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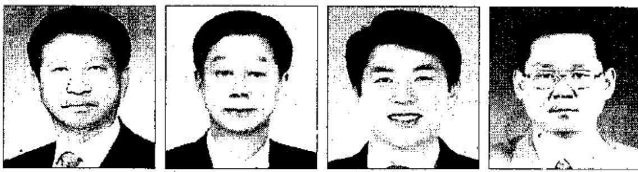
근거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의장단 9석 중 1석을 더민주가 가져가는 것이 정상적인 원 구성 방법이다. 새누리당은 상생과 협치에 대한 방안 마련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누리당 후반기 의장단과 협의회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일 부의장은 “더민주 의원들과는 잘 협력해 나아가 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민주의 요구를 당 차원에서 재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도건설협 운영위원회 도 건설협회는 16일 오전 도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인식 김찬용 김철호 이성식

최인식 대금중건 대표 산업포장

김찬용·김철호·이성식 대표 국토부 장관표창

오늘 건설의 날 정부포상

최인식(57) 원주 대금종합건설 대표이사가 '2016 건설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수상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7일 오후 서울 논현동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6년 건설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이 참석하며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150여명의 건설유공자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과 국토부장관상

을 수여한다.

도내에서는 최인식 대금종합건설 대표가 30여년간 강원건설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다.

최 대표는 2006년 대금종합건설을 창업했으며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삼척-동해 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SOC사업에 참여했다. 또 김철호 삼척한신ENG 대표(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장), 김찬용 대양 대표이사, 이성식 횡성 웰텍 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안은복 rio@kado.net

도의회 후보기 의장 후보 김동일

새누리당 경선 실시... 부의장 후보 권혁열·김성근 의원 선출

더민주 반발 진통 예고

제9대 강원도의회 후보기를 이끌 차기 의장에 절원 출신의 4선의원인 김동일 전반기 부의장이 사실상 결정됐다. 부의장 후보에는 재선의 권혁열(강릉) 농림수산위원장과 김성근(속초)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도의회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후보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 결과 김 부의장이 박영승(평창)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보다 많은 표를 받아 당내 의장 후보가 됐다.

이날 당내 경선은 36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듣고 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후보들의 득표수를 공



김동일 의원 권혁열 의원 김성근 의원

개하지는 않았다. 부의장 후보인 권혁열, 김성근 의원은 임남규(태백) 운영위원장, 김금분(춘천) 사회문화위원장과 함께 4파전으로 치러졌던 경선에서 이겼다.

새누리당은 이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 원구성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민주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새누리당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 기자실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전반기에 이어 9석의 의장단을 독식하려는 계획을 진행중"이라며 "상생과 협치를 요구하는 더민주와 도민들의 통합적 요구를 철저히 의면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정식 원 구성이 이뤄지는 오는 7월 4일까지 새로 선출된 의장단과 원구성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의 의장단 1석 배분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 후보기 원내대표에 함종국(횡성)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협의를 통해 후보기 원내대표에 강청룡(춘천) 의원을 선출했다. ▶ 관련기사 3면

김여진 beatle@kado.net

관련 동영상 kado.net

“협력사와 함께 성장”... 相生경영 최우선

최인식 대금종합건설(주) 대표
이사는 1984년 대한석탄공사
건축부를 시작으로 건설산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00년 6월
대금종합건설(주)을 창업한 이후
수많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
에 참여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
운 경영 여건에서도 지역 건설산
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상생경영을 실
천하고 있다. 상생과 협력이 최우
선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갑과 을의 관계를 상호 대등한 관
계로 전환, 존중·예우를 내세우고
있다.

산업포장

최인식
대금종합건설 대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
고 있다. 무엇보다 동반성장이라
는 큰 틀 아래 수익이 나지 않는

공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로써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고용 안
정에도 큰 기여를 했다.

정도경영도 실천하고 있다. 협
력업체와의 거래에는 현금을 지
급한다는 절대 원칙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신뢰를 쌓
아 함께 성장하는 정도경영을 정
착시키고 있다.

건설산업의 공익과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의 운영위원 및 윤리위원을 맡
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건
설산업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
하는 데 앞장서는 등 지역 내 건
설산업 선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상준기자

중심제 낙찰률 ‘들쭉날쭉’... 공사별 10%p 이상 편차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낙찰률
이 공사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들쭉날
쭉’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보다 못한 73~74%대가
예상되는가 하면, 일부는 기술형입찰에 버
금가는 85%대 낙찰률도 나올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낙찰자
결정(통보)이 완료된 중심제 입찰은 총 4
건으로, 평균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79.614%를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별로 보면, 1호 사업인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
사의 낙찰률은 76.890%로, 업계의 기대
치에는 다소 모자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끈이여 집행된 SJA 제주 국제
학교 신축공사의 낙찰률은 시범사업 평
균치를 넘어서는 83.097%가 나왔다.

또 부산항 신항 운동(2단계) 준설토투
기장 복토공사의 낙찰률은 77.965%로
떨어졌다. 가장 최근 춘천시청사 건설공
사 낙찰률은 다시 80.504%를 기록하며

최저 73%대, 최고 85%대 전방
업계, 투찰전략 마련에 고심

큰 편차를 나타냈다.

개찰을 마치고 현재 심사 중인 공사까
지 보면 편차는 더욱 심해진다.

이르면 다음주 낙찰자를 가릴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인 85%대 낙찰률이 예상된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공사 역시 낙찰률은 83% 이상
이 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첫 집
행물량인 시흥은계B2블록 아파트 건설
공사 3공구의 낙찰률은 채 74%에도 미
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평균 낙찰률은 80% 안팎을 유
지하겠지만 낙찰률 격차는 최대 10%p
이내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집행률

량이 적은 데다 공사마다 현장여건이나
실행률, 고경비 등 기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입찰참가자수를 비롯해 사업내용에
따라 업체별 원가를 차이를 커 일반화가
가능한 낙찰률의 적정선 혹은 마지노선을
긋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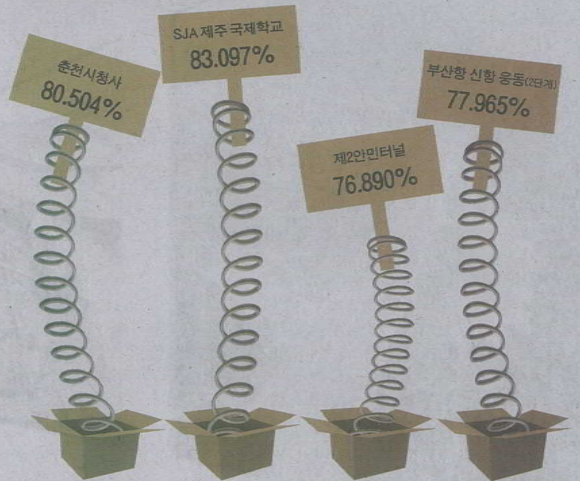
다만, 낙찰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여타 중심제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투찰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첫 발주는 물론, 심사기준조차
내놓지 못한 발주자도 있어 좀처럼 평균
낙찰률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그런지, 최
저가보다 못한 낙찰률이 나오기도 하고
시범사업보다 훨씬 높은 낙찰률도 예상
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사별로 차별
적인 투찰전략으로 대응하고 보다 철저
히 실행(률)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집행 완료된 중심제 공사 낙찰률



향후 평균낙찰률, 시범사업 평균 밀도는 78%선 예상

입찰금액 감점 기준·동점자 처리 등 달라진 탓

중심제 초기 평균 낙찰률이 80%선에
달하고 공사별로 최대 10%p포인트가 넘
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값은
결국 78%선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
이 지배적이다.

최저가 낙찰제보다는 3~4%p포인트 높
고 앞서 집행한 시범사업보다는 4~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첫 발주를 앞두고
있는 종합평가낙찰제의 낙찰 하한선인
77%는 약간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업계에서도 올 초 정부의 계약예
규가 확정되면서부터 예상했던 수치다.

입찰금액심사의 감점기준과 동점자 처
리방식 등이 앞선 시범사업과는 크게 달
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에서는 상
대적으로 높은 투찰률(가)을 유도했으나,
본 사업에서는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

“큰 편차 자연스러운 일
오히려 발주자별 인위적
낙찰률 억제 지양해야”
업계 경계심 드러내

은 투찰률(가)을 우대하고 있다.

즉,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투찰률
(가)을 써낼 경우, 같은 차이의 낮은 투찰
률(가) 대비 2배의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
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시범사업에서는 같은 차이라면
높은 투찰률에 대한 감점이 낮은 투찰률
대비 절반이었다.

이렇다 보니 낙찰 확률을 높여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예상되는 균형가격보다는
투찰률을 낮춰야 하고, 자연스레 낙찰률

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동점자 처리방식도 종전과는 달
라져 낙찰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시범사업에서는 종합심사 점수가
동일할 경우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투
찰사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본 사업에서는 가장 낮은 투찰
사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공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수
의 동점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낙찰률도 그만큼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고용비용 범위에 따라 입찰금
액의 적정성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낙찰
률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앞서 시범사업에서
보였던 평균 낙찰률을 기대하긴 어렵다
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업계는 최근 편차가 크게 나타나
고 있는 낙찰률에 대해서는 일면 자연스
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공사별 혹은 업체별로 실행(률)이 제각
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찰률도 자연
히 탄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업계는 물량이나 시공계획심사
등 일종의 주관적 심사요소나 심사항목
배정조정 등 발주자별 인위적인 낙찰률
억제조치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 업계관계자는 “낙찰률이 너무 낮게
나와도 마찬가지지만, 80%선을 넘어가
면 발주자들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진다”
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금세 재정보건을
모르는 비는 아니지만 적정공사비 보장
및 품질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인위적인 낙찰률 억제는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